

◆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동아시아 역사 대화의 재개 - 기타큐슈(北九州)에서의 “몽고 내습”에 대한 회의 ”

‘국사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2 번째이지만 지난해는 준비 모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1 회이다. 동아시아에는 국가마다 ‘국사(国史)’가 있고 그 사이에는 언뜻 넘어 서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이를 뛰어넘어 나아가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갈 수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국사들의 대화’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아즈미재단(渥美財団)의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상무이사(常務理事)가 직접 명명(命名)해 주셨다.

올해부터 4 회에 걸쳐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관련 국가들의 역사가들을 초청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올해의 테마는 이른바 ‘원구(元寇: 일본 원정)’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시대를 거슬러 올라올 예정이다.

동아시아 각국 모두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참가자는 주로 국제 관계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일본과 한국의 국내 역사 전문가들도 초청하였다. 평소에는 국제 관계사와 그 배후의 정치적 의미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워크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 이전에 이러한 회의의 의미를 인정해 주거나 할까?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점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동시 통역도 ‘한일’, ‘한중’, ‘중일’로 각각 마련하였다. 먼 과거에 대한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의 통역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통역사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몽골 내습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라는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설정된 주제이다. 금세기 초반 수많은 역사공동연구가 시도되었지만 당시처럼 근대의 문제들을 거론하게 되면 일본인은 자동적으로 피고석(被告席)에 자리잡게 된다.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뜻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몽골 내습’이라는 먼 과거의 사건은 현재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쉬운 주제이다. 특히 동아시아 3 국의 국민들은 지금 유행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모두가 피해자에 해당한다. 고려는 엄격한 몽골의 통치 하에 있었고, 중국에는 몽골 왕조가 탄생

했으며, 일본의 경우 정복은 면하였지만 방어에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 3 국 모두가 피해자이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냉정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단, 이 회의에는 몽골인 역사학자도 3 명 초청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해자의 후손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다. 일본인은 몽골인 요코즈나(横綱: 스모의 프로 리그인 오즈모의 선수(力士)의 서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명칭)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과 ‘원구’를 동일시 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한국의 연구자들도 이에 대해 특별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번 역사가들의 대화가 완전히 정치적 영향 밖에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나라는 과연 대몽골 · 울루스의 일부인가, 아니면 중국 왕조의 일부인가.’ 이에 대해서는 몽골인민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온 몽골 민족 및 한민족, 이들 세 가지 지역 출신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거자오광(葛兆光) 교수는 중국의 전문가 중에는 두 해석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현재의 국가적 틀을 그대로 과거에 적용하는 아나크로니즘(anachronis, 시대착오)은 엄격하게 비판받지만, 동아시아의 정부와 여론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조롱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발표와 토론 중에는 필자에게 특히 인상적인 내용이 몇 있었다. 하나는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 교수의 지적으로 쿠빌라이가 일본에 3 번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의 죽음이 그 실행을 막았다는 사실, 아울러 베트남과 자바(Jawa, 그렇게 멀리까지!)가 방어 전쟁을 성공한 후 즉시 원나라에 조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몽골을 격퇴한 후 일본은 교역을 재개하였지만 외교적인 배려는 하지 않았다. 국제 관계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배후에 존재했던 일본의 독립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몽골에 복속된 후의 고려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만약 일본도 공략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천황가(天皇家)가 단절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일부가 원나라에 종속되어 이명미 교수가 고려에 대해서 소개한 것처럼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고 실험(思考實驗)은 일본사의 난제 중 하나인 천황제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사료된다.

고려에 있어서는 조원 교수가 언급한 음식 문화의 변화도 흥미로웠다. 고려 왕조의 기반이 되었던 불교는 육식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지배 하에서 이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정치적 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일단 변화된 생활 문화는 지속된다. 역사를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사 이상으로 생활 문화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의 구조와 남녀 간의 관계도 사회 구조의 큰 틀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정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조선 왕조의 경우 19 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아이는 모계(母家)에서 길러졌다. 그럼 몽골에서 공녀(公女)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서 키워지는 것일까? 궁궐? 외부? 원래 몽골에서는 부계와 모계 중, 어디에서 아이를 키운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이 잇달아 떠오르는 발표였다.

이처럼 이 회의의 모든 발표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발표회장에 초청된 일본과 한국의 국내외 사학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느꼈을까? 주의 깊게 경청해 주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기회를 보고 주저없이 질문까지 해주었다면 회의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을 것이다. 필자는 총괄 토론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국제 회의에 나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느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여 발언을 촉구했다. 회의 서두의 인사에서 준비한 말이었지만 무심코 언급을 잊어버린 것이 후회되었다. 참석자들은 일단 발언을 시작하면 모두가 정확하고 흥미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다음 회의 때에는 회의 시작과 더불어 이러한 발언들을 쏟아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모두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한 일정의 발표가 이어져서 그런지 필자는 총괄 토론 날의 아침에는 꽤나 지쳐 버렸다. 그러나 사회를 맡은 류제(劉傑) 교수는 훌륭한 정리 발언을 통해 틀을 제시하였고 특히 한국 측의 책임자인 조광(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선생님은 발표 하나 하나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 및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셨다. 공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달려와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다음 서울에서의 회의는 분명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회의였다.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MITANI_Hiroshi>

1978 년 도쿄대학(東京大学)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국사학 전문과정 박사과정 수료. 도쿄대학 문학부 조수(助手), 가쿠슈인여자단기대학(学習院女子短期大学) 전임 강사 · 조교수를 거쳐 1988 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이후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토미학원여자대학(跡見学園女子大学) 교수, 도쿄대학

명예교수. 문학박사(도쿄대학). 전문 분야는 19세기 일본의 정치 외교사,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민족주의 · 민주화 · 혁명의 비교 역사, 역사학 방법론. 주요 저서 : “메이지 유신과 내셔널리즘-에도막부 말기의 외교와 정치 변동”(야마카와 출판사[山川出版社], 1997년), “메이지 유신을 생각한다”(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2012년), “애국 · 혁명 · 민주”(지쿠마 서방[筑摩書房] 2013년) 등. 공저로는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일중(日中) 대화의 시도”(도쿄대학 출판회, 2006년)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 류제[劉傑] · 양다칭[楊大慶]) 등 다수.